

# 장성군, 관광인프라 조성 대폭 확대

### 황룡강 '물빛공연장'·장성호 '제2출렁다리' 등 볼거리 추가 필암서원·축령산 편백숲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꾸며

장성군은 올해 황룡강과 장성호 등 보유하고 있는 관광자원의 인프라를 대폭 확대 조성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흥(洪)길동무꽃길축제(5월)와 황룡강 노란꽃잔치(10월)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황룡강은 '물빛공연장'과 '항기나는 플라워터널' 등 즐길거리와 휴게시설을 늘리는 한편 발원지인 장진보-광주경계 구간의 하천을 정비해 국가정원 지정의 기반을 다진다.

세 번의 가을대풍을 이겨낸 100만 송이 해바라기 정원이 조성됐던 황룡강 황미리 랜드에는 테마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주말 평균 5000명이 찾은 장성호에는 제2출렁다리를 준공하고 수변 백리길을 개통한다. 장성호는 호수 아래 미타단지에 조성 중인 장어정식거리와 함께 향후 장성관광의 발전을 주도할 지역으로 손꼽

힌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장성 필암서원은 유물전시관 리모델링과 세계유산 명품돌레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세계인의 문화재'로서 품격과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축령산은 편백숲 공간 재창조사업과 하늘길 조성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로 만들어간다.

군의 이 같은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들이 주거나 교통여건 신장을 가져올 중장기 사업들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부권역을 연결하는 청운지하차도를 개설하고 스마트 하이패스 전용 IC를 설치해 사통팔달로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여기에 남면 덕성행복마을 조성 LH



장성군이 올해도 장성호 수변산책로 조성과 출렁다리 개통에 따른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를 이어갈 예정이다. 장성호 출렁다리 인근 풍광. (장성군 제공)

3차, 4차, 5차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장성공설운동장 준공과 다목적 복지관 '가족센터' 신축 등 주거환경과 복지분야의 획기적인 개선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며 군의 성장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를 모

은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이라는 변치 않는 목표를 향해 올해도 힘있게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화순군 이서면 도원마을 진입도로 개통

### 1.48km 구간 4년만에 완공...무등산 찾는 관광객 편의 제공

화순 지방도 897호선과 도원자동차야영장 입구를 잇는 도원마을 진입 도로가 개통됐다.

이 도로는 이서면 영평리 일원 지방도에서 영평리 2구(도원마을)를 거쳐 무등산국립공원공단이 조성한 도원자동차야영장까지 총 1.48km 구간을 잇는 폭 10m 2차선 도로다.

이번에 준공한 도원마을 진입 도로 개설공사는 화순군과 국립공원공단의 협약에 따라 총 54억원이 투입됐다. 2015년 12월에 착공해 4년 만에 완공했다.

군은 진입 도로 개설로 무등산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기반 시설 조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무등산국립공원공단이 조성한 도원자동차야영장이 개장하면 지역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 관광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 화순경찰, '치안대상'·'화순폴 백일장' 시상

화순경찰이 군민을 대상으로 치안대상을 수여하면서 한 해를 마감해 눈길을 끌었다.

화순경찰서는 지난 30일 경찰서 대강당에서 치안문제에 기여한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19 화순 치안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화순 치안대상은 지역의 치안과 안전문제 해결에 기여한 화순 군민을 적극 발굴·포상하고 치안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순경찰서가 처음 제정한 상이다.

지역공동체 치안, 여성 청소년 범죄 예방, 교통사고 예방 등 6개 분야에서 지역 치안 문제 해결에 기여한 군민과 공무원

17명에 대해 포상했다.

지역공동체 치안분야 치안대상을 수상한 화순군청 공무원 김관우씨는 지난 해 11월 22일 새벽 3시 CCTV 관제중 차량 탈이 절도범을 발견해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

이 날 시상식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진행된 화순폴(Pol) 백일장 시상식도 열렸다.

경찰을 주제로 진행된 화순폴 백일장은 화순군 학교에 재학중인 초·중·고 160여 명의 학생들이 시와 산문 부문에서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8편의 우수작을 선정 시상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

# 담양산타축제, 21만명 다녀갔다

### 허려한 조형물·감성 이벤트 주효 '크리스마스 마켓도시' 가능성

겨울철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담양산타축제가 20만명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사진>

지난 30일까지 17일 간 펼쳐진 담양산타축제는 스토리를 담은 산타 조형물과 화려해진 트리,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21만여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겨울을 녹일 만큼 대단한 열기를 뽐내며 메타프로방스를 중심으로 한 담양을 일원의 '크리스마스 마켓도시' 조성 가능성을 높였다.

이번 축제에서는 중앙공원에 380개의 플라스틱 박스를 활용한 대형 산타와 스토리가 담긴 벤치, 불방울 수목트리가 사진명소로 인기를 끌었고 메타프로방스 입구 초대형 산타를 비롯한 사랑의 열쇠길 등이 메타프로방스 알록달록한 건물과 조화를 이뤄 동화같은 풍경을 연출해 경관

을 사진에 담으려는 관람객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특히 당일 소비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특별 이벤트와 해동문화예술촌 등 원도심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가 대성황을 이룬 지역상가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담양산타축제가 오면 산타를 만날 수 있다는 컨셉으로 행사장 곳곳에 산타복장과 탈을 착용한 산타가 돌아다니며 사진도 함께 찍어주고 대신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야간경관, 이벤트, 교통 등 3박자가 맞아 떨어졌고, 관람객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에 아끼지 않은 경관, 상인들의 열정이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홍동남 산타축제 추진위원장은 "앞으로



도 야간경관과 크리스마스 아이템을 접목한 축제 브랜드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메타프로방스와 담양을 일원을 크리스마스 마켓도시로 조성해 축제가 주민소득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장성군, 3월 중순까지 도로 제설작업 기간 설정

장성군이 겨울철 제설작업에 완벽히 하기 위해 3월 중순까지 도로 제설작업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0월 제설장비 사전점검을 마쳤으며 핵심 제설장비인 15t 트럭 7대와 굴삭기 1대에 대한 입차계약과 제설기 장착을 마무리했다.

제설작업 구간은 208개 노선(450km)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고갯길 등 집중제설이 필요한 구간을 8개 노선 13개소

(25km)로 별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군은 상황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며 마을 이면도로나 안길은 각 읍면 자원봉사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제설을 진행할 계획이다.

군은 자원봉사자들에게 농기계 부착용 제설기를 보급하고 인원별로 책임구역을 설정해 효율적인 제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 담양 대나무축제 '문화관광축제' 선정

### 2년간 1억2000만원 국비와 홍보·마케팅 지원 혜택

담양군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나무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한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문화관광축제는 문체부가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를 대상으로 관광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축제를 심사해 인증하는 관광브랜드로 올해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문화관광축제 단

일 등급으로 35개 축제를 선정했다.

담양대나무축제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문화관광 우수축제,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제로 이어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위상을 굳건히 하고 있다.

담양군은 대나무축제가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2년간 1억 2000여만원

의 국비 지원과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홍보 및 마케팅 등 간접지원이 확대돼 보다 내실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22회 담양대나무축제는 대나무와 함께해 온 담양의 농업문화 구현을 테마로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죽녹원 및 관방재림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담양=서영준 기자 xyj@

# 2020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Vision Truth**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605-1115

### 대학원 추가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신학과(Ph.D.)	○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	
		유아교육학과(D.Ed.)	○	
		사회복지학과(D.S.W.)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통합예술심리치료학과(D.C.S.)	○	
		석사	신학과(Th.M.)	○
		유아교육학과(M.Ed.)	○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코칭심리학과(M.Psy.)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  
· 전형일: 2020. 2. 3(월)

### 학부 편입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학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과	○	
	실용음악학과	○	

\* 순수외국인은 본교에서 수용가능한 범위내에서 2,3,4학년 모집학과별 약간명씩 모집한다. 유아교육과 제외  
\* 한국어교육학과는 2학년 편입생은 순수외국인에 한해 모집함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6(월) ~ 17(금)

### 신학대학원 편입모집

####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자
3학년	○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자

▶ 전형일정 · 원서접수: 2020. 1. 20(월) ~ 29(수)